

비 "중학교 선배 이상민, 선생님들이 안 좋은 이야기만"

등록 2026.05.12 11:49:53



[서울=뉴시스] 1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에서는 가수 겸 배우 비가 게스트로 출연해 탁재훈, 이상민, 이수지, 카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SBS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방송인 이상민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밝혔다.

11일 방송된 SBS TV 예능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에서는 비가 게스트로 출연해 탁재훈, 이상민, 이수지, 카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상민은 비를 향해 "나한테 정식으로 인사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비는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중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밝혔다.

비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상민이 형은 전설 같은 존재였다"며 "롤라로 정점에 있을 때였는데 선생님들은 오히려 안 좋은 얘기만 해주셨다. 그때는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저희 학교에서는 제일 성공한 선배다. 확실한 건 송문 중학교에 가면 형 사진이 딱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카이가 "혹시 우상이었나"고 묻자 비는 "우상은 아니고 그냥 선배. 제 우상은 아니었다. 저는 다른 그룹을 좋아했다"고 선을 그어 이상민을 당황하게 했다.

비는 카이와도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다. 두 사람은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이라고.

비는 "내가 본 사람 중 몸이 가장 예쁜 사람이 카이"라고 했고, 감동한 카이는 어머니를 찾는 시늉을 해 웃음을 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